미술과 환상

예술의 가장 근본은 환상

이전까지 과학 정치 예술 하나 였다. 정치 종교 분리 되지 않았다(신정일치). 환상을 현실화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

1) <도시위에서> 1914-1918 캔버스에 유화 // 하늘을 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 반면 과학자들은 이를 현실화하려 노력(비행기..) 서구에서는 예술과 과학이 함께함. 예술은 환상을 자극, 이 환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이 과학자. 환상을 통해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람들이 정치가, 사회가다.

1914-1918 (1차대전시기). 전쟁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때 이 그림은 꿈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

2) 말레비치, 칸딘스키, 몬드리안, 샤갈 / 합리성, 이성에 기반을 둔 유토피아를 꿈꿈. 이러한 기하학적 추상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이끄려는 미술가 그룹이 탄생.

1915-1916년경 문학가 예술가 등이 전쟁 피해 스위스 찌리 (중립국)로 감. 이성에 바탕을 둔 전쟁에 대해 환멸. 문명에 대한 환멸. 예술운동 시작.

다다이즘

다다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2가지 설이 있다.

1) 트리스탄 차라는 자신이 ‘다다’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주장.

“다다는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흑인 종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의 꼬리를 ‘다다’라고 부른다. 이탈리아의 일부 지방에서는 정육면체나 어머니를 ‘다다’라고 부른다. 장난감 목마나 보모를 부르는 단어도 다다이고, 러시아어와 루마니아어로 이중긍정을 할 때도 다다이다.”

2) 휠젠베크는 <다다이전 : 다다이즘의 역사>(1920)라는 글에서, 자신이 발과 함께 우연히 나이프를 꽂는 단순한 방법으로 발견한 용어가 다다임.

4) 맨 레이 <다다 그룹 사진> 1921 : 폴 샤도르네, 트리스탄 차라, 필리포 수포, 세르주 샤르쉰, 폴 엘뤼아르, 자크 리고, 마크 수포, 조르조 리브몽, 데세뉴 (문학가가 많다..)

마르셀 장코 <가면> 1919 // 서구 전통의 고전적인 가면처럼 보이지 않는다. 마분지 실 물감 등 이용해 재료 자체에 생명력 두고. 뭔가 예쁘게 잘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다이즘은 유럽 전통과 결별하고자 한다. 안티아트 주장. 미술이 갖는 모든 권위에 도전. 허무주의. 다다이스트들은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중립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성 합리성 필요x,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국가, 경계선 필요 x. 애국심은 인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술의 전통적인 권위에 도전.

5) 프란시스 피카비아 <여기 한 여자가 있다> 1915 / 프란시스 피카비아 <귀여운 팔레트> 1917

스위스 치리히(찌리?)에서 제일 먼저 시작. 전 유럽과 미국으로 전파. 예술의 전통적인 권위에 반항을 드러냄. (양식은 지역(나라)마다 다름)

둘 다 여성의 초상. 여자를 기계로 표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풍자. 기계에 대한 혐오는 아니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 권위 .. 여기에 대한 조롱 풍자. 한편에선 유머감각도 볼 수 있다. 초상화적인 것에 대해 도전.

아래의 작품과 대조. 이성 규칙 권위에 대한 도전. 인간을 기계로서 풍자. (안티아트)

예술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미학적 사고에 대해 도전.

다다이즘이 추구한 것은!!!!!!!11 안티아트

6) 앵그르 <오달리스크> 1814 //일반적 초상화, 고전적 권위있는 아카데믹함.

7) 뒤샹 <샘> 1919 // 피카비아는 비록 초상화적인 것에 대해 도전했으나, 그리긴 했다. BUT 샘은만들어진 기성 용품 오브제를 예술화 – READYMADE.

그 고상한 미학적 전통적 고급스러운 미학적 개념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READYMADE했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술가가 사고, 지칭하기만 하면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그 이전에는 만들거나 그리거나 해야 했다. 뒤샹이 보여준 것은 역작용으로 예술가의 권위가 더 높아짐. 현대미술에 엄청난 문을 여는 계기. 그리지 않고 만들지 않고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뒤샹 이후로 그림을 전혀 그릴 줄 몰라도 미술가가 될 수 있다. 그 개념을 처음 보여준 사람이 뒤샹. EX)백남준(비디오아티스트)-그림 그릴 줄 몰라도 예술가 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발달만 시켜도 미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줌.

즉, 다다는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관습적인 것을 전복시켰다.

8) 뒤샹 <자전거 바퀴> 1913 / 뒤샹 <병 건조대> 1914 // 미술의 개념이 확장. READYMADE까지도 미술로 들어오게 되었다.

9)뒤샹 <L.H.O.O.Q> 1919 /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1503-07 //

다빈치 꺼는 고급스럽고.. 세계적인, 인류에 있어서 걸작으로 꼽힘.

다다이스트였던 뒤샹은 모나리자의 권위를 풍자하고 조롱 ->안티아트

다빈치가 동성애자, 양성애자였다. 친모-계모 사이에 갈등있었다.

뒤샹 것은 모나리자를 남성적으로 만든 것은 다빈치의 성적 취향 조롱. 이 작품의 고급스러움에 반기, 조롱. 작품 제목도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 성적으로 조롱. 모나리자 걸작품에 대해 도전.

10)뒤샹 <독신자에게 발가벗겨진 처녀> 1915-23 // 1916년부터 뒤샹은 그림을 그리지 않음. 그 뒤로 계속 READYMADE만 함. 이 작품이 그리는 것으로서 마지막 작품. 환상을 자극.

독식자는 아래에 있고, 위에는 여인. 마치 과학실험실의 비커처럼 되어 있다. 독신자는 여자가 혼자 있는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 밤마다 초콜렛을 부순다. 는 속담이 존재함. 독신자와 처녀는 영원히 만나진 않는다. 일종의 연금술 같기도 하고, 연금술(하찮은 것을 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으로서 표현.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미적 개념, 미의식 필요 없다. 화가도 그림 그리지 않아도 미술가가 될 수 있다.를 보여줌. 다다이스트 중 뒤샹이 거장..

권위를 부정하는 다다의 개념은 초현실주의로 연결..

11) <문학가들의 모임> 1922 (앙드레 브르통, 폴 엘뤼아르, 트리스탄 차라, 벤자민 페레). / 초현실주의 그룹, 1930년 (트리스탕 차라, 폴 엘뤼아르, 앙드레 브르통, 한스 아르프, 살바도르 달리, 이브 탕기, 막스 에른스트, 르네 크르벨, 만 레이) //

다다의 정신이 파리로 전해지면서 초현실주의로 연결이 됨. 초현실주의는 1924년 제 1차 선언 통해서 시작.

초현실주의는 1924년 앙드레 브르통(1896-1966)의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시작된다.

초현실주의 – 용어는 시인 아뽈리네르의 희곡 <티레치아의 유방 1917>에서 유래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또한 일체의 미적,도덕적 선입견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사유의 기술”

루이 아라공 <꿈의 파장>

-사물의 본질은 결코 그것의 리얼리티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세상에는 우연, 환영, 꿈과 같이 정신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으며 -리얼리티 이상의 관계들이 있다…..”

12) 막스 에른스트 1891-1976 독일출실, <동물 모양의 부부> 1933 / <인간은 그것에 관해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리라> 1923 // 우연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다.

드리핑, 프로타주도 들어가는 것 같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우연성 중시. 그렇기 때문에 자동기술법 많이 개발. 자동기술법이란? 데칼코마니, 프로타주….

드 기리코 <시의 불확실성> 1913, <철학자가 정복한 것> 1914 // 초현실주의 있기 전. 초현실주의에 영감을 준 사람.. 증기기관차가 떠나고 있다. 맞지도 않는 시계. 광장에 솔방울이 있다. 낯설고 조합이 안되는.. 그와 같은 낯설게 보이면서 불안을 증폭시키는 그와 같은 드 기리코의 작품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이 열광.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됨.

13) 호안 미로 <농장> 1921-22 / 호안 미로 <경작지> 1923-24 // 스페인에서 20C거장이 굉장히 많이 배출… 자동주의, 구상과 추상이 다 보이기도 함. 본능적이면서도 질서가 있다.

굉장히 구상적이면서 추상적이다. 초현실주의를 지배했던 이념은 공산주의이나 호안 미로는 반대.

14) 르네 마그리트 <강간> 1934 / <가짜 거울> 1928 // 벨기에 출신. 초현실주의는 처음에는 문학을 중심으로 오히려 미술에서 크게 전파. 전 유럽으로 가게돼서 스페인 사람들도 파리로 오게 되고, 르네 마그리트도 파리로 오게 됨. 미술이 굉장히 초현실주의로 발전하니까 1929년에 초현실주의 2차선언을 하게 됨.

몽한적, 잠재의식, 꿈 속의 세계 같다.

회화를 정복시켜서 회화를 강간하는 그런 느낌을 줌.. 1930년에 앙드레 브르통이 초현실주의자로 인정.

마그리트 작품의 특징 : 리얼리티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짐. <강간>의 경우, 우리는 얼굴이라고 얘기하면 눈,코,입 얘기함.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넘어섬. 우리의 상식 현실을 넘어섬. 이게 정말 얼굴이 맞나..? 바로 그와 같은 . 우리 얼굴과 몸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고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고..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마그리트의 특징.

15) 르네 마그리트 <연인> 1928 // 르네 마그리트의 어린시절, 엄마가 보자기를 덮어쓰고 투신자살. 그 것에 질문을 많이 던짐..

16) 르네 마그리트 <이미지의 배반 –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1928 //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 다른 사물을 떠올리거나,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다 라거나.. 정답은 없다. 우리는 파이프를 그린 그림을 보며 파이프라 생각.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일반적인 상식, 행동 .. 타성에 젖은 생각과 행동에 질문을 던짐. 이 같은 것은 이미지와 언어적 기호와의 차이점. 어떤 관계에 대해 보여줌.(마그리트의 특징)

17) 르네 마그리트 <폭풍우의 조짐> 1928 / <유클리드의 산책로> 1955 / <감성적인 코드> 1960 //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위치. **데뻬즈망**..!!!!!!!! 르네 마그리트의 기법의 가장 큰 특징

데빼즈망은 비합리적인 세계 가리킴. 데빼즈망을 통해 비합리적 세계, 무한에 대한 동경과 환상, 합리성과 절대성에 대한 거부를 드러냄.

와인잔에 구름이 담겨있고. 악기나 가구 등이 바다에 있고.. 이런 비합리적인 것을 통해 새로운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 이젤 위에 캔버스 걸쳐 있다. 캔버스를 창에 비유.

초현실주의는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 영향 많이 받음. 낯섬을 통해 두려움 강박관념 유발시키는 것이 비현실주의. 모든 대상은 내면에 다른 것이 숨어있다.

18) 조르조 데 키리코 <시의 불확실성> 1913 / <철학자가 정복한 것> 1914 //

19)르네 마그리트 <인간의 조건> 1935 // 마그리트는 물질과 정신, 의식과 무의식, 주관과 객관. 현실과 환상의 동시적인 개념을 찾는다.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다.

20) 르네 마그리트, <투사의 무덤> 1961 // 장미가 너무 커서 낯설게 보임. 약간의 긴장감과 내면의 뜻을 찾으려고 함.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준다.

21) 살바도르 달리(1949-1989)와 갈라 / 살바도르 달리 1949 // 스페인 출신. 후에 미국으로 귀화. 비정상적 성격. 무정부주의적인 것도 좀 있음.. 드 기리코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음.

22) 살바도르 달리 <기억의 고집> 1931 // 파리로 와서 본격적으로 초현실주의 운동에 가담. 가장 대표적인 초현실주의자. 같은 스페인 출신인 피카소 영향, 호안미로의 영향도 받음. 프로이드의 저서 <꿈의저서>를 읽게 되고, 초 현실주의에 많이 반영함.

초현실주의는 시각을 구속하는 족쇄를 부수기 위한 혼돈의 세계이다. 뒤샹의 영향 많이 받음.

유동적인 구불구불한 시계는 달리가 평생을 집착했던 사물. 저기 멀리 보여지는 수평선은 사막같기도 하고, 바다의 해변 같기도 하고. 해변 차갑고 사막은 뜨껍다. 텅빈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안, 침묵. 유동적인 시계. 이와 같은 것은 꿈에서의 악몽.. 그런 느낌을 줌. 오히려 텅빈 공간이 우리를 더 불안 긴장 낯설게 만듦. 일종의 달리 자체가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사람. 밀레의 만종,유동적 시계, 그의 연인 갈라 –달리의 강박관념에 영향.

23) 살바도르 달리 <윌리엄 텔의 노년> 1931 / 살바도르 달리 <윌레엄 텔의 수수께끼> 1933 //

윌리엄 텔은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화살을 쏜 사람.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금욕적이라 평생을 성적 불안에 시달렸다고 믿기도 함.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와 존경과 미움 등 복잡한 감정을 가짐. 바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낸 것이 윌리엄 텔의 노년. 자신을 누르고 있는 강박관념 무의식 세계를 시각화 한 것. 위에는 사람들 누드가 보이고. 사자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성적 욕망. 윌리엄 텔의 노년이 성적 관념이 가득차 있다. 이 것은 달리 본인의 관념이기도 함.

아버지는 레닌 같은 독재자. 혁명가로서의 아버지. 갈라와 달리는 동체로서 생각.